

현장 속으로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첫 숨

화면 밖에서 만난 얼굴

서울YWCA 특별행사

2026 서울YWCA 특별후원음악회



서울YWCA

2026

0910

Vol.644



2026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삼성역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다. 매년 관람객 수가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 작년에는 개막도 전에 입장권이 매진되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던 행사다. 이렇게 관람객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도, 크고 널찍한 현대식 건물에서 열리는 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접근성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다. 코엑스 스타필드는 건물 자체가 너무나 크고 넓고 내부는 혼잡하기에 경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 근방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코엑스를 종종 다녔던 나조차도 번번이 그 안에서 헤매곤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올해 한 참가사에서 준비한 안내 문구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 출판사는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이용 관람객 접근성 안내 게시물을 제작했고 수어 영상, 활동과 이동 지원 등의 접근성을 제공했다.



감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가급적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으니, 그건 장애인들의 존재를 감각하는 것이다. 그들이 유령이 아니라 내 곁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시민이며, 따라서 지금 내가 쓰는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당연히 '장애인이 있다'는 점을 말이다.

— 김도현 『장애학의 사선』

곧 이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해당 출판사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동시에 적잖은 의문을 남겼다. 도대체 왜 주최 측이 아니라 참가사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이 행사가 장애인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비단 이번만의 문제일까?

누군가는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각하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소외의 대상을 만들어 낸다. 또 누군가는 장애인이 지금 여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으로 함께할 방안을 강구한다.

'얼리버드 사전 예매' 같은 방식으로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를 외면하고, 그저 이 문화에 익숙한 대중을 수용하는 데만 목적을 맞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겐 여전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장 느린 정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정의를 위해 누군가는 오늘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움직이고 있다.

서울YWCA

2026년 9·10월호 644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9월 공동기도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숨결이 모든 존재를 살립니다.
나무와 바람, 하늘과 물, 그 안에 깃든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파괴의 시대에, 돌봄과 순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서울YWCA가 생명을 살리는 영성의 타전이 되게 하소서. 아멘

10월 공동기도

하나님,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우리의 손과 마음을 드립니다.
여성종교개혁자들의 용기와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개혁의 신앙이 화평의 연대로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교회와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4 첫 숨
화면 밖에서 만난 얼굴

6 현장 속으로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8 미술로 읽는 성경
피와 바다 사이, 구원의 길을 여시다

10 미디어 모니터링
더 일상화되고 더 정교해진 성차별의 재생산

11 서울YWCA 특별행사

14 서울Y 소식
7·8월 뉴스
9·10월 행사 안내
9·10월 캘린더

20 회원증모 명단

24 평화 에세이
2026 워싱턴 통일선교사 세계대회

27 후원 소식

28 Y 센터
흥미로운 한자漢字 속 성경이야기

30 알림터

31 생명살림 바자회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김영순, 독립운동가 · YWCA 활동가

『서울YWCA』 2026년 9·10월호 통권 제644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최 봄 편집위원장 황성연 편집부위원장 임지은 편집위원 이재숙 조희수 최정우 최혜란 홍성숙 편집 강민아 성지희 김수아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www.instagram.com/
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
seoulywca



blog.naver.com/
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검색창에
서울YWCA

화면 밖에서 만난 얼굴



이요셉
Joseph Lee
사진가 · 작가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세상의 잣대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길모퉁이였는데,
그 짧은 대답은 제 영혼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한마디가
그렇게 깊은 파동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제 안에 사람의
겉모습과 재력과 배경을
보고 판단하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추웠던 어느 겨울날, 신림역 근처에서 허리가 ㄱ자로 굽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뼈까지 시린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레 여쭙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혹시 누구와 함께 사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세상의 잣대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길모퉁이였는데, 그 짧은 대답은 제 영혼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한마디가 그렇게 깊은 파동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제 안에 사람의 겉모습과 재력과 배경을 보고 판단하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착박한 땅,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길가에서도 저마다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분들을 천국의 야생화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인을 알아가는 방식은 너무 쉽고 가벼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가 매일 머무는 거주지가 되었고,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정교하게 골라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매끄러운 화면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이 편파적인 고집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여유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편 가르기와 우월감, 혹은 열등감뿐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라는 말이 정답 같지만, 이미 내가 옳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그마저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면 의지적으로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제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한 번도 제가 옳았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 이웃이 되기를 그만두겠다는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이웃을 돕는 일을 훨씬 쉽게 여깁니다. 후원 계좌로 마음을 보내는 일은 깔끔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당장



이요셉 작가 페이지
LOVE n PHOTO



©이요셉

내 곁에 앉히는 일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어색함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세계가 편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곳에서는 부대끼 필요 없이 얼마든지 나 혼자 옳을 수 있으니까요.

13년 동안 길에서 노숙하던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손을 잡고 몇 년의 시절을 함께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잠실대교 아래에서 잠을 잤는데, 여름이면 “네가 제일 시원한 데서 잔다”며 장난을 쳤지만 겨울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따뜻한 곳에서 재우고 싶어 고시원 문을 여기저기 두드렸지만, 남루한 행색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영영 울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 사람을 학력과 외모와 배경으로 평가하지는 않는가? 나는 사람을 도구로 보는가, 아니면 존재로 보는가.’

밥을 먹이고 거처를 찾아주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상대를 나와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뜻한 악수 한 번, 진심 어린 미소 한 번, 시원한 물 한 잔. 그것이면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이 말이 손쉬운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저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자리는 알고리즘이 잘아 주는 매끄러운 세계가 아니라, 조금 부대끼고 상처받을지라도 끝내 서로를 끌어안아야 하는 내 곁의 이웃,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일 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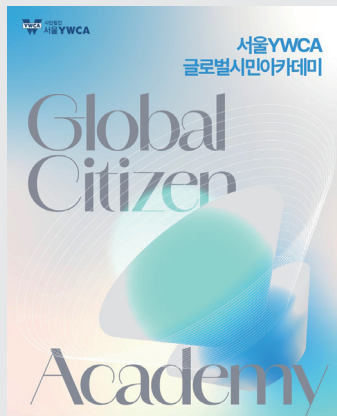
그 겨울, 신림역 할머니의 대답이 오늘도 마음에 맴돕니다.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낯선 한 사람도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야생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알고리즘과 확증편향에 갇혀 서로를 쉽게 미워하고 갈라서는 요즘, 평소 타인의 삶을 깊고 정직하게 바라봐 온 이요셉 작가의 시선을 빌려 ‘화면 밖 우리 곁에 있는 진짜 이웃을 따뜻하게 품는 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026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평화의 자리

서울Y는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글로벌 주요 이슈가 시민사회와 개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이슈를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의 흐름을 읽고 세계시민으로 일상 속에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1강

국제정세의 현황과 전망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힘의 정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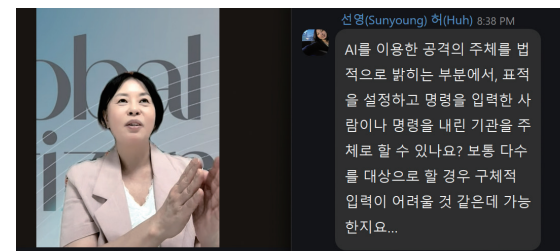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앞세운 일방적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는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협력과 연대의 방향보다 각자도생의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패권’이라는 단어를 NO.1의 의미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누가 더 힘의 우위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람시는 패권을 지배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패권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와 백인남성의 국가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①백인 우선주의 ②미국 우선주의 ③트럼프 우선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백인 우선주의는 인종주의와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여성주의에 대한 반대로 보수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일방주의이다. 트럼프 우선주의는 ‘엘리트에 희생 당한 미국 민중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는 모순이 있다. 미국-이란 전쟁을 하나의 개별사건으로 보지 않고, ‘3차 걸프 전쟁’으로 봐야한다. 가자전쟁부터 지금의 전쟁이 직결된다고 보고 가자전쟁이 1차 걸프 전쟁, 25년 6월의 ‘12일 전쟁’을 2차 걸프 전쟁 그리고 이번 전쟁을 2차 이란 전쟁이자 3차 걸프전쟁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란 전쟁의 전망에 대해 확신 되기보다 교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란의 지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2강

국제사회 긴장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먼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나의 일이 되는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현재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하루에 천 명, 러시아 전사자는 오백 명 정도 발생한다. 수많은 전사자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전쟁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본토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스스로 폭발하는 드론인 샤헤드 드론은 앞부분에 40kg짜리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열압력 탄두의 경우 온도가 2천도 이상 발열한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루에 7-8번 대피하며, 폭탄이 100개도 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UN이나 제네바 협약의 ‘군인이 민간인을 죽일 수 없다’는 조항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중재자인가? 바로 글로벌시민이다. 시민이 전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면 전쟁이 쉽게 나지 않는다. 독재자의 손에 전쟁이 달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전쟁 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이다. 글로벌 시민이 된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3강

비폭력 평화의 의미와 가능성

정당한 전쟁(Just War)의 한계를 넘어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로

조영미 국무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 기후평화분과위원장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단순한 ‘전쟁의 부재’로 보지 않고 두 개의 층위로 구분한다. 전쟁, 유혈 분쟁, 물리적 폭력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제거되고 정의와 협력이 실현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본다. ‘비폭력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소극적 비폭력으로 시작해서 구조적인 비폭력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며, ‘비폭력’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닌 대안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비폭력 관련 연구자 오키나와의 미공군 주둔지를 위한 바다 매립 현장에 방문했을 때 비폭력 운동이 단순히 핵심 권력의 분리를 넘어 참여자들의 연대와 지속성을 이끌고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참여자는 평범한 일반시민을 지칭한다. 언어와 대화의 평화화, 약자와 피조물과의 연대, 착취적 소비 구조에 대한 비협조, 시민적 연결망 구축하는 것으로 일상 속 비폭력 평화를 실천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시작할 하나의 비폭력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많은 이와 공유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평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 곧 평화의 길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열린다. ♡



정리_ 윤시는 국제운동팀 간사

피와 바다 사이, 구원의 길을 여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강도가 매우 점층적으로 높아졌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세상의 신은 만물의 창조자 이시고 주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왕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 그리고 주변 모든 국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팔십 세가 된 모세와 팔십삼 세가 된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이후부터 애굽 땅에는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기,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기,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의 가축과 사람에게 생기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온 땅에 파리 떼가 그득하기, 가축에 돌림병이 생겨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가축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가축 죽기, 모세가 날린 화덕의 재 두 움큼이 티끌이 되어 모든 애굽 사람과 가축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기,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에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리기,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기, 고센 땅을 제외하고 사흘간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기, 열 번째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다.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얀 사들러 1세의 동판화 「유월절 준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어린 양의 피를 짐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열 번째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날을 ‘유월절’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다.

이날의 상황을 플랑드르 출신의 판화가이자 출판업자로 종교적 주제의 판화를 많이 만들었던 얀 사들러 1세(Jan Sadeler I, 1550-1600)의 동판화 「유월절 준비」에서 엿볼



얀 사들러 1세 「유월절 준비」 1585. 종이에 동판화, 20x28.2cm. 워싱턴국립미술관, 미국

수 있다. 유대력 니산월(1월) 14일(태양력 3·4월경) 해 질 무렵부터 이스라엘의 각 집안에서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양이나 염소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있는 모습이다. 양쪽 출입구에서는 어린양의 피를 문 아래위 인방에 바르고 있다. 밖에서는 칼을 든 천사가 각 집을 다니고 있으며, 길거리에는 죽은 사람과 가축의 시체가 즐비하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리띠와 신발, 지팡이를 갖추고 급히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단과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반 아이바조프스키 「유대인들의 홍해 횡단」

이날 밤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속히 애굽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여호와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마음껏 그를 섬기라고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인에게서 받은 은금 패물과 의복,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싸 들고 급히 애굽을 떠났으니 430년 만의 귀향길이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순간과 함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여 병거와 말을 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았겠다고 불평을 쏟아낸다. 그런 백성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14:14)하며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다.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자 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 발로 홍해를 건넌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시 손을 드니 바닷물이 다시 흘러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은 모두 익사하고 만다.

러시아 화가 이반 아이바조프스키(Ivan Aivazovsky, 1817-1900)는 바다그림으로 유명한데 그의 작품 「유대인들의 홍해 횡단」은 홍해를 건넌 유대인들과 물에 빠진 애굽 군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늘은 아직 밤이라 어둠에 싸여있는데 애굽 군대 위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멀리 이스라엘 백성 쪽은 불기둥으로 환한 모습이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에 명령하고 있고, 넘실대는 파도가 쫓아오던 군사들을 삼키고 있는 장면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큰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시때때로 불평불만을 일삼고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 사랑과 징계,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후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다. ♪



이반 아이바조프스키 「유대인들의 홍해 횡단」 1891. 캔버스에 유채, 96x160cm. 개인소장,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더 일상화되고 더 정교해진 성차별의 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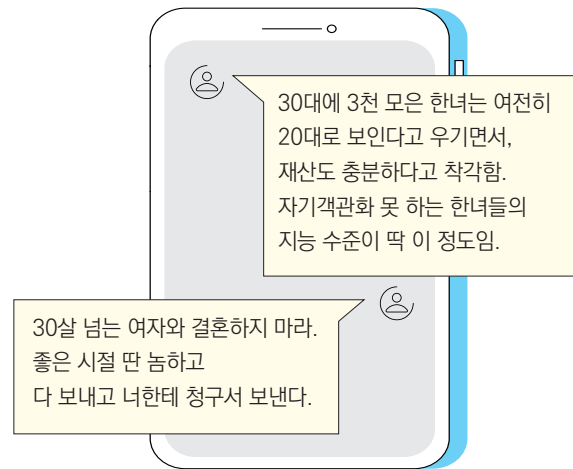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차별은 단순한 욕설과 비하를 넘어 경험담, 밈, 이미지, 영상 등 일상적인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여기에 추천·댓글·공유 등 플랫폼의 상호작용 구조와 AI 기반 콘텐츠 생산이 더해지면서 혐오와 편견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성차별과 혐오를 일상적인 담론으로 만드는 공간이 되고 있다.

경제적 거래로서의 연애·결혼 담론

‘한녀혼’을 비롯해 ‘상향혼’, ‘국결’, ‘3천 거지녀’¹⁾ 등의 표현을 중심으로 여성의 나이·경제력·성적 경험 등을 결혼 시장의 가치로 평가하고, 결혼을 경제적 거래와 손익의 문제로 인식하는 담론이다. 이를 통해 30대 이상 여성과 한국 여성을 결혼 기피 대상으로 일반화하고, 여성을 선택과 검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되풀이한다.

AI를 통한 성적 대상화의 확산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실존 인물에서 캐릭터와 AI 생성 이미지로 확대되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과 프롬프트 공유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하면서 대상화의 생산과 소비를 더욱 쉽게 만든다. 가상의 이미지 역시 현실의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비는 왜곡된 여성상을 고착시킨다.



집단적 상호작용과 혐오의 순환

익명성, 추천·댓글, 베스트 게시물 중심의 노출 구조는 비슷한 의견이 반복적으로 주목받고 특정 인식을 집단의 공통된 생각처럼 강화한다.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강화된 혐오 담론은 SNS와 언론을 거쳐 다시 커뮤니티로 유입되며 확산을 거듭한다. 결국 성차별적 표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의 구조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대응 역시 개인의 게시물 삭제나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과 혐오 표현 탐지, AI 생성 콘텐츠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언론은 커뮤니티의 일부 의견을 사회 전체의 인식처럼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혐오와 알고리즘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혐오의 사후적 차단을 넘어, 혐오가 생산·확산되는 온라인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리_서정인 여성운동팀 활동가

모니터링 기간	2026년 5월 20일~6월 2일
모니터링 대상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트래픽 상위 9곳의 게시물 1,800건과 댓글

- 1) ① 한녀혼: 한국 여성과의 결혼 ② 상향혼: 원래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결혼을 의미하는 사회학 용어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신분 상승을 추구한다는 의미 ③ 국결: 국제 결혼, ④ 3천 거지녀: 30대에 재산이 3천만 원뿐인 여자를 일컫는 말

여성의 연대로,
환대와 포용의 하모니

GOOD Impact 104^{years}

2026 서울YWCA 특별후원음악회

2026. 9. 19. (토) 15:00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문의 02-3705-6042, 6064



Piano
박종훈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및 뉴욕 줄리어드 음대 석사 졸업
- 이탈리아 이몰라 피아노 아카데미 졸업(디플로마)
- 이탈리아 산레모 클라시코 국제 피아노 콩쿨 1위 수상 외 다수 콩쿨 입상
- 한국인 최초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완주
-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비롯한 국내외 50여 개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 유럽, 미국, 한국 등 50여 개의 도시에서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
-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진행(2014-2016) 및 KBS1FM '가정음악' 진행
- 드라마 '밀회', '너를 사랑한 시간', EBS '다큐프라임', KBS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등 출연
- 현)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Contemporary Jazz Artist
Danny Jung

- 노스텍사스대학교 회계학 및 재즈학 전공, 버클리 음악대학 뮤직 비즈니스 전공 음악학 학사
- 그래미 어워드 수상 아티스트 Patti Austin, Christopher Cross와 Walt Disney Concert Hall 초청 솔로 공연
- 서울아트센터콘서트홀·롯데콘서트홀 단독 콘서트 다수 개최
- 서울시립교향악단 협연
-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특별 공연
- 「All About Hymns」, 「Make A Wish」, 「Right On Time」 등 다수의 앨범 발표
-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 Don Grusin, 기타리스트 Norman Brown 등 세계적인 뮤지션과 협업
- 현) 재즈라이프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Tenor
국윤종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비엔나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스위스 제네바 국제음악 콩쿨 우승, 프랑스 마르세이유 오페라 콩쿨 우승, 스페인 빌바오 국제음악콩쿨 3위
- 독일 하노버 극장, 레겐스부르크, 오스트리아 빈 폴크스오퍼 주역가수
- 일본 도쿄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협연
- 스위스 RSR 심포니, 뉴욕 카네기홀, 베르겐 그리그홀, 빈 무직페어라인, 빈 콘체르트 하우스 등 협연
- 국립오페라단, 서울 시립오페라단 주역가수
- 현)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Electone
한윤미

- 〈원신〉, 〈니어〉, 〈니케〉, 〈스타듀밸리〉 월드투어 콘서트 예술음악감독
- 강문경 전국투어 콘서트 연출
- 〈스타크래프트 라이브콘서트〉, 〈디아블로: 레저렉션 온라인콘서트〉, 오페라 〈리골레토〉 등 음악감독
-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고성현, 뮤지컬배우 고은성 등 음반 작·편곡 및 프로듀서
- KBS국악대상, KBS국악한마당, 〈스타크래프트〉, 〈로스트아크〉, 〈월드오브 워크래프트〉, 부천, 수원, 용인 등 시립합창단 등 다수 콘서트 편곡 및 밴드마스터
- 현) BTA Entertainment 대표, 한윤미밴드 리더



Soprano
강혜정

- 연세대학교 및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테너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협연
- 프랑스 르망 국제음악축제 초청 리사이틀
-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기념 음악회 초청 연주
- 프랑스 콜마르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Festival de Musique de Chambre(바흐 페스티벌)」 초청 공연
- 뉴욕 마이클 시스카 오페라상(The Michael Sisca Opera Award) 수상
- 제6회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부문 대상
-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 제17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주역상
- 제38회 금북문화상 음악부문 수상
- 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Baritone
양준모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수석 졸업,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레나타 테발디 국제 콩쿨 3위, 독일 ARD 성악 국제 콩쿨 1위 및 청중상 수상
- 독일 SWR 방송국 주최 신인 음악 데뷔 콩쿨 1위 수상
- 독일 뉘른베르크 마에스터징어 국제 콩쿨 2위 및 청중상, 최고의 바그너상 수상
- 이탈리아 마르티나 프랑카 여름페스티벌, 스위스 취리히 국립극장, 함부르크 국립극장, 뉘른베르크 국립극장, 드레스덴 젬퍼 오퍼, 잘츠부르크 여름페스티벌 주역가수
- 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Band
WINSOME

보컬 : **장일현**
건반 : **심선보**
첼로 : **이호진**
크로스오버 밴드 윈썸(WINSOME)은 '마음을 이끄는 매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컬&기타, 첼로, 건반 3인조로 이루어진 윈썸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완벽한 하모니로 Pop, Classic, OST,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매력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크로스오버 밴드이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발걸음이 모여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YWCA가

세상을 향한 좋은 소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 2026 서울YWCA 특별후원음악회 공동기도문 중에서

여성의 연대로,
환대와 포용의 하모니

2026 서울YWCA 정책워크숍



서울Y는 7월 14일 '2026 서울YWCA 정책워크숍'을 동두천 봄비아트센터에서 열었다. 이사·실무자 38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박 교수는 모금 관련 규제를 '기부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을 짓는 설계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얼마나 모으느냐'가 아닌 '어떻게 신뢰를 지키며 길게 가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책무와 성장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방안에 대해 조별로 논의한 후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책워크숍에서 공유된 평가와 제안이 지속가능한 서울Y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농촌 체험 '잘먹고 잘살기'



서울Y는 7월 11일 진천 바노들농장에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잘먹고 잘살기'를 운영했다. 30명의 비혼 여성이 참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에 대해 배우고 멜론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토마토를 직접 수확하고, 어린 멜론을 활용해 피클을 만드는 등 농촌의 일상을 체험했다. 오후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들으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공감했다.

언니들의 혼삶스쿨 : 부동산



서울Y는 7월 2일과 9일, 2회에 걸쳐 '언니들의 혼삶스쿨 : 부동산'을 열었다. 약 200명의 비혼 여성과 함께했으며, 두소장 대표(두드림부동산)가 강사로 나섰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필요한 공인중개사와의 소통, 대출 관련 팁과 리스크 파악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에 참가자들은 '내 집 마련이 걱정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온다'고 호평했다.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언니들의 혼삶스쿨' 다음 강의는 9월 11일과 18일 '자기방어'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가족캠프 '너랑나랑 또랑또랑'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18명과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1박 2일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새 정원 먹이주기, 크루즈·레일바이크 탑승,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했다.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누리봄

캠프 '여름 속으로 풍덩!'

누리봄은 7월 23일과 24일 누리봄 청소년 15명과 함께 돌봄 강화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강원도 강촌과 청평호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애니메이션박물관 탐방과 리조트 물놀이를 즐겼다. 특히 청평호에서는 다양한 수상 스포츠에 도전하며 유대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30일 용산장애인복지관과 교육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커피바리스타 자격증과정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영했다. 앞으로도 영등포센터는 AI 시대에 발맞춘 AI 기초다지기, 솜품 만들기 등의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장애인 교육훈련생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AI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생성형 AI로 여는 스마트 교실'을 운영했다. 지역 아동전문기양성과정 교육생을 비롯한 교육분야 구직자와 함께한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 프로그램 기획, 실무 문서 작성과 교육교재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업무 효율성과 실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강남청소년센터

여름방학프로그램 '별다방'

강남청소년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5일과 6일 별다방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서포터즈 '포롱'이 함께 기획했으며, 양일간 청소년 50명이 참여해 이색 요리 체험을 즐겼다. 참가자들은 '여름 과일연구소'와 '버터떡 야호~' 활동을 통해 제철과일의 특징점을 배우고 과일화채, 청포도청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또한 버터떡 레시피를 익혀 계량과 반죽에 도전해 보며 새로운 경험을 만끽했다.





언니들의 혼삶스쿨
혼삶 스킬업 - 자기방어

비혼 여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 스킬을 함께 배워봅니다.

- 1강 _ 9월 11일(금) 19:40-21:40
자기방어훈련 이해, 비물리적 대응 연습,
ASAP 호신술(1) 실습
- 2강 _ 9월 18일(금) 19:40-21:40
몸 인식 활동, ASAP 호신술(2) 실습,
위험한 순간 대응 시나리오 만들기
- 강사 조승연(Fifty Fit 이사 · 운동강사, 자기방어훈련강사)

• 장소 서울Y 회관 GX룸

• 모집 자기 방어 스킬을 배우고 싶은 비혼 여성 20명

비혼 서밋

비혼 여성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과

돌봄을 모색하는 공론장을 엽니다

- 일시 10월 24일(토) 13:00
- 장소 서울Y 회관
- 모집 비혼 여성 100명



교회뜰 배움터
밥상, 돌봄을 말하다

밥상에 담긴 돌봄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눔과 연대로 이어지는 사회적 실천을 모색합니다.
기독교성, 여성 목회자와 신학자 · 신학(대학원)생 등
관심 있는 모든 이를 기다립니다.

- 일시 · 장소
- 9월 29일, 10월 6 · 13 · 20일
매주 화 14:00, 서울Y 회관

- 10월 1 · 8 · 15일
매주 목 19:30, 온라인Zoom

서울Y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서울
와이

아직도 친구가 아니신가요?

인스타그램
@seoulywca_korea

팔로우 신청

유튜브
서울YWCA 검색

구독 버튼

카카오톡
Q 검색란에 서울YWCA

채널 추가

드리밍 피스 프로젝트
국내외 청년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젝트

서울Y는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이 함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계시민을 양성합니다.

- 일시 10월 1일-11월 5일
(매주 목, 10월 29일 제외)
18:00-21:00 총 5회기
- 장소 서울YWCA 마루
- 문의 02-3705-6023

- 세션1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킹, 팀빌딩, 주제선택, 활동계획 논의
- 세션2 분쟁의 시대 속 난민은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연천_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보호팀 PM
- 세션3 기후위기는 왜 평화의 문제인가
Malle Fall Sarr_ 녹색기후기금(GCF) 인증 전문가
- 세션4 평화는 누가 만드는가
한미미_ Korea Sharing Movement 상임대표
- 세션5 수료식
팀별 활동보고회, 수료식, 만찬(포틀럭 파티)

신규 프로그램 안내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늘봄학교 실무전문인력 양성 2기	9월 2일(수)-11월 2일(월) (월-금) 14:00-18:00
가족 헤어커트	9월 10일(목)-11월 5일(목) (매주 목) 10:00-13:00
트렌드 헤어커트 입문반	9월 5일(토) - 11월 7일(토) (매주 토) 10:00-13:00
나만의 판타지 웹소설 작가 입문 (판타지 웹소설)	9월 1일(화)-9월 22일(화) (매주 화) 19:00-22:00

영등포

• 문의 02-858-4514(내선 1번)

과정명	교육일정
AI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양성	9월 7일(월)-11월5일(목) (월-금) 9:30-13:30
디지털서비스융합 전문가 양성	9월 2일(수)-11월 12일(목) (월-금) 14:00-18:00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주말)	1차: 9월 5일(토)-10월 17일(토) 2차: 10월 24일(토)-11월 21일(토) (매주 토) 9:30-13:30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야간)	1차: 9월 28(월)-10월 21일(수) 2차: 10월 26일(월)-11월 11일(수) (월-금) 19:00-22:00

2026 9 지하철에서 책 읽는 달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위원회 재정부 11:00	4	5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신혼부부학교(41기) 10:00 · 울력 정기모임(19일) 14:00 · 씽크머니 정기모임(19일) 15:00
7 · 명예위원모임 11:00	8 이사회 10:00 · 중보기도회 13:00	9 · 소리모아 정기모임 (매주 수) 17:00	10	11 · 언니들의 혼샬스쿨(18일) 19:40	12 · 신혼부부학교(42기) 10:00 · 다이내믹 청년공론장 15:00
14 · 역대이사모임 11:00	15 위원회 영등포Y 10:3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6 위원회 누리봄Y 11:00 회원활동팀 11:00	17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8 위원회 강남Y 10:30	19 2026 특별후원음악회 여성의 연대로, 환대와 포용의 하모니 15: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4:00
21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평생체육팀 18:00	22	23	24	25 추석	26
28 위원회 봉천Y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29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 교회뜰 배움터 14:00	30			

2026 10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달

월	화	수	목	금	토
			1 · 드림링 피스 프로젝트 (~22일, 매주 목) 18:00 · 교회뜰 배움터 (~15일, 매주 목) 19:30	2	3 개천절 · 씽크머니 정기모임(31일) 15:00
5 대체휴일	6 위원회 재정부 11:00 · 교회뜰 배움터 (~20, 매주 화) 14:00	7 · 소리모아 정기모임 (매주 수) 17:00	8	9 한글날	1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4:00 · 울력 정기모임 14:00
12	13 이사회 10:00	14	15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6	17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19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20 위원회 영등포Y 10:3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1 위원회 누리봄Y 11:00 회원활동팀 11:00	22	23 위원회 강남Y 10:30	24 · 강남 청소년 힐링축제 IN:JOY 10:00 · 봉천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11:00 · 비혼 서밋 13:00
26 위원회 봉천Y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27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8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29 2026 생명살림바자회 10:00 	30	31

서울YWCA 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원
1,381명
(기업·단체포함)

기간 4월 15일(수) - 6월 24일(수)
접수 6,768.51점(목표 6,500점의 104.13%)
회비 203,055,000원(목표 195,000,000원의 104.13%)

단체상 1등 재정부 850점
2등 청소년팀 600점
3등 봉천종합사회복지관 563점

특별상 국제협력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사업팀
여성능력개발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재정부
청소년팀 홍보출판팀 회원활동팀
(9개 부서, 가나다순)

정기회원

월CMS

감윤우	감윤익	강경록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문숙
강미연	강민아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시현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윤정	강주현	강창석	강혜진	강효미
강희경	경규연	경유진	계숙화	고경혜	고선자	고선헌
고선환	고성희	고영순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재옥
고흥애	공명주	공민호	공민희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연미	구지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미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정	권순철	권승현	권영재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지연	권대진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길명경	길선복	길소연	길용선	길종선
김건우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호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경희	김관옥	김광석	김광일
김광희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도연
김도연	김동욱	김동은	김동형	김동화	김라엘	김말녀
김명수	김명하	김명희	김문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소	김미옥	김미정	김미희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서연	김석대	김선덕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자	김선화	김성민	김성준	김성혜
김성환	김성희	김세아	김세진	김소은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김순경	김순임	김순자	김순해
김시은	김시은	김 신	김애숙	김양선	김양희	김에스터
김연경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순	김영심	김영옥
김영혜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옥례	김옥민	김완수
김용관	김용숙	김우인	김원경	김유경	김유리	김유미
김유진	김유찬	김윤나	김윤전	김윤정	김윤종	김윤지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익동	김인교	김인석	김자희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완	김정자	김정화	김정환	김종숙	김주희	김 준
김준호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철규	김철민	김철봉	김철주	김철준
김종현	김태수	김태숙	김태연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하영	김하은	김학희	김한규	김해정	김향점	김혁배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원	김형준	김형태	김혜규	김혜성
김혜양	김혜연	김혜진	김화숙	김효숙	김희열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김희훈
나미정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동균	남숙희	남승우
남연정	남윤경	남은희	남현주	남형주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연순	노영숙	노윤희	노인화	노재현	노현주
노혜환	동지현	류경아	류다경	류미현	류 혁	마신웨
마재은	마초희	맹정신	문경혜	문다영	문미경	문선영
문신환	문자영	문종숙	문주현	문현숙	문형진	문혜경
민경도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종원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난영	박노영	박대근	박덕규	박도원	박 만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소	박미영	박미용	박민선
박민호	박상수	박서호	박선미	박세철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애	박신자	박양신	박영덕	박영미	박외덕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윤애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정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정숙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화	박종희	박주아	박주원
박주호	박지연	박 진	박진아	박진용	박진향	박찬인
박찬호	박채원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 현	박현선
박현숙	박혜리	박혜수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박희수	방윤옥	방윤우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주	배은진	배정미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광옥	백명숙	백선옥	백성희	백옥선
백운순	백은선	백은엽	백정금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백희규	변영순	변은수	변지영	서경미	서경희	서근배
서락원	서명수	서미화	서민경	서빛나	서성진	서옥덕
서원석	서유정	서은경	서지영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서혜승	서혜원	석성화	석성옥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연석	성영애	성영환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손근희	손소영	손영아	손지현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옥의	송윤주	송윤희	송은아

송재임	송재환	송종우	송준석	송혜승	신경아	신동선
신상섭	신상용	신승우	신승우	신연식	신영아	신용자
신원재	신유닌	신정현	신종인	신지숙	신찬용	신필선
신현경	신현미	신현웅	신화옥	심경호	심창섭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준태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해룡	안희란	양다현
양봉규	양세진	양수정	양영화	양종숙	양진화	양현옥
양혜진	엄수길	엄현진	여명진	염윤희	예지희	오경신
오경아	오경준	오미영	오민아	오범석	오성아	오성탁
오세경	오소연	오영란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오충민	오해동	오혜영	온기석	왕정애	윤희중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형준	위정선	유경숙	유난숙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순희	유승연
유예나	유예목	유원균	유은경	유은영	유재미	유재현
유정순	유정한	유정훈	유종우	유주빈	유진아	유현숙
유현숙	육순연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기홍
윤동원	윤문노	윤방현	윤병숙	윤복례	윤상은	윤선영
윤선희	윤설영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소민	윤유희
윤장범	윤재숙	윤재양	윤재혁	윤정향	윤지영	윤지원
윤 혁	윤현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효석	윤희숙
윤희정	이가연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노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순	이금자	이금재	이금희
이기범	이기영	이기현	이기화	이길우	이남연	이남진
이덕순	이도연	이돈행	이동숙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자	이명혜	이미재	이민석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길	이상명	이상옥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선미	이선영	이선옥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이수진	이숙용	이순영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곤	이승국	이승연	이승윤
이승진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경	이애신
이 연	이연수	이영대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애	이영우	이영자	이영진	이영화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용균	이용호	이유경	이유리

2026 워싱턴 통일선교사 세계대회 다음세대에 주는 메시지



신효숙 박사
평화운동팀 자문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미국 교포 2세 청년이 통일선교사로 위촉

워싱턴북한선교회 10주년 기념 ‘2026 통일선교사 세계대회’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어가는 세대 통일선교부흥회’ 부제에 맞춰 AI와 통일선교, 복음 통일 환경 조성, 다음세대 양성, 국제정세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하이라이트는 미국 교포 2세인 20대 청년 두 명이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통일선교사로 위촉된 일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할아버지의 고향인 북한, 부모의 고향인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통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한 것이다. 강사로 참석한 나는 ‘북한의 다음세대와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다음세대도 변하고 있음을 알렸다. 북한의 2030세대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집단생활과 개인생활을 함께 경험한 사이세대, 장마당세대이다. 이들은 기성세대 보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 기기를 잘 다루며 개인의 안전과 경제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다음세대의 연결에 긍정적인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국과 북한의 다음세대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접착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위촉된 통일선교사 청년들이 미국을 넘어 한반도 그리고 주변을 잇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26 통일선교사 세계대회에 참석한 신효숙 박사(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한국의 장로가 세운 캐나다 선교센터

선교대회에 이어 선교여행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조선 선교의 문을 연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다.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캐나다 선교비전센터(Vision Fellowship Center)로, 조선에 온 캐나다 선교사 700여 명 중 232명의 기록을 찾아 전시하고 있었다. 한국의 최선수 장로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해 이 센터를 세웠다.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 교육·의료 사역을 펼치며 조선의 근대화에도 기여한 선교사가 너무도 많은데 이를 몰랐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놀라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립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존재와 공적을 재조명하고 감사와 헌신을 전해야 할 때이다.



사진 왼쪽부터 캐나다 선교비전센터와 가우처 목사의 무덤

갓을 쓴 민족을 향한 갓(god)의 뜻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한 랭커스터 제일연합감리교회(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가우처 목사의 무덤, 그가 시무하던 러블리레인연합감리교회(Lovely Lane United Methodist Church)를 방문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일찍이 조선 땅에 들어와 배재학당과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설립했다. 가우처 목사는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미국 교회에 알리고 선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선 선교의 문을 열었다.

가우처는 미국 기차 안에서 우연히 갓을 쓴 조선의 견미단을 만난다. 모자수집이 취미인 그는 조선인의 모자가 갓이라는 것을 알고 갓(god),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조선 민족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일본으로 파송을 앞둔 아펜젤러를 찾아가 일본이 아닌 조선으로 가면 선교비 전액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했고, 아펜젤러는 이를 받아들인다. 둘의 만남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순종이 만나 놀라운 조선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한 손에 복음을, 다른 한 손에 전문성을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단기간에 근대화를 이루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선교사들의 노고와 순교가 있었다. 조선에 온 선교사는 약 6,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조선으로 들어왔고 이 중 600여 명이 우리 땅에 묻혀있다. 이들이 이 땅에 흘린 땀과 눈물, 기도와 순교의 피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선을 찾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 대부분이 20-30대였다. 고국에 있었다면 전문가로서, 의사와 목사로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았을텐데, 조선의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인한 가족의 죽음을 목도하고 자신도 순교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 대부분은 한 손에 복음을, 다른 한 손에 전문성을 들고 이 땅에 왔다. 의료인으로 생명을 살렸고, 여성으로 종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교회, 병원,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해 전문가를 양성했다. 우리도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 시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다음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게 하셨다. 하나님의 꿈은 청년의 비전으로 이어진다. 믿음의 다음세대가 전문성을 갖추고 한반도 복음통일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 ♡

EXPERT

300만 개의 스피쿨로 더 강력한 성분 도달

콜라겐 특수관리 이상의 탄력 효과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



IOPE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 2026년 7월



특별 후원

- 장학금 차귀숙
따뜻한나무장학회
- 2026 정책워크숍 임혜원
- 2026 특별행사 고경란 김선자 김 형 이경연
이연배 조혜전 차귀숙 최수경
최화순 한혜영
알비레오 유한회사 위즈이케이



북멘토링 후원

- | | | | | | | |
|------|------|-----|-----|-----|-----|-----|
| 구영숙 | 김민아 | 김상희 | 김선자 | 김성연 | 김정숙 | 김진숙 |
| 김하나 | 김혜경 | 남은희 | 민혜경 | 박나영 | 박미소 | 박소현 |
| 박용천 | 박진선 | 박채원 | 배은경 | 우영숙 | 이연배 | 이윤선 |
| 이정희 | 이푸른하 | 이현미 | 이희정 | 임재연 | 정모아 | 조민형 |
| 조연신 | 최동수 | 최 봄 | 최정우 | 최한나 | 최혜영 | 한혜영 |
| 월요카페 | 창진 | | | | | |



재능 기부

-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 2026년 7·8월 회보 '미술로 읽는 성경' 칼럼 기고



일반 후원

- | | | | | | | |
|------|-----------------|-----|-----|-----|-----|-----|
| 고려옥 | 고선희 | 구영숙 | 권혜진 | 기영숙 | 김미자 | 김선자 |
| 김소희 | 김숙희 | 김윤희 | 김인복 | 김정순 | 김현경 | 김 형 |
| 박위자 | 박정희 | 박제희 | 박진선 | 배은경 | 배정미 | 서해영 |
| 석성옥 | 송순옥 | 양수경 | 오준호 | 우주훈 | 우훈희 | 유광주 |
| 육순연 | 윤혜선 | 윤혜선 | 이애진 | 이유리 | 이유림 | 이윤선 |
| 이행자 | 이홍자 | 임중현 | 장민경 | 장수자 | 정석용 | 정은숙 |
| 조순영 | 조연신 | 조종남 | 조종남 | 채서은 | 채재호 | 최경자 |
| 최혜란 | 하태진 | 한정신 | | | | |
| 월요카페 |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 | | | | |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한자漢字 속 성경이야기

글_한 린 평생회원

『창세기의 발견』은 싱가포르계 중국인 신학자 C.H. 강이 한자와 창세기의 관계를 연구하며 미국의 병리학 의사 에텔 넬슨과 함께 펴낸 책입니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를 위한 중국어 교재에서 한자 ‘船(배 선)’의 풀이를 보고 놀라 본격적으로 한자와 창세기의 관계를 파헤칩니다. 흥미롭게도 船은, 배를 뜻하는 舟(배 주)에 八(여덟 팔)과 口(입 구)가 더해져 노아의 방주에는 여덟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초로 발견한 서양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상제上帝’ 하늘에 계신 제왕이라고 번역하면 된다는 것에도 무릎을 쳤습니다.

본래 중국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이주했으리라 추정되는데, 그들의 문화가 후기 바빌론-앗시리아 문화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기원은 약 B.C 2500년경으로, 바벨탑 사건의 연대와 일치합니다. 바벨탑 사건 후 세계 각지로 흩어진 민족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동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가로막힌 지리적 고립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그들 고유의 문화를 2천 년간 지켜올 수 있었고, 우상이나 신화 없이 단 한 분의 신,上帝만을 섬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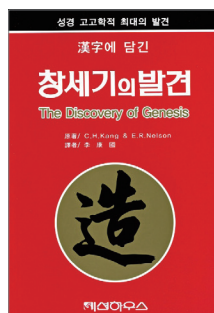
더 놀라운 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상제에게 제사 드릴 때 황제가 사용한 축문입니다. “오, 우리의 애기를 들어주시는 하늘 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노니 우리, 무지몽매한 당신의 자식들은 어떻게 감사의 정을 나타내오리이까” 무엇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자에서 하나님을 神(신 신)이라 쓰는데 示는 ‘나타나다, 드러나다,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靈(신령 령)을 분석하면 맨 위에 있는 가로획은 하늘을 나타내고 여기서부터 성령이 나온 것이며, 雨(비 우)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운데 口口口 입 세 개는 삼위일체를, 마지막 아래 巫(무녀 무)는 마술사를 뜻합니다. 창조기간 동안의 성령의 활동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하다’의 造(지을 조)는 흙(土)으로 형체를 빚고 입(口)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고(告) 견제(見, 覿) 만드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여러 한자가 한 사람이나 여러 명이 아니라 두 사람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來(올 래)는 두 사람이 나무 뒤에서 오는 것이고, 坐(앉을 좌)는 두 사람이 땅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며, 가다 往(갈 왕)의 왼쪽 부수는 두 사람을 나타냅니다. 從(따를 종)은 아담이 어디를 가든지 이브가 따라 다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禁(금할 금)에는 하나님 示께서 접근 금지 시킨 두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裸(벗을 라)의 왼쪽 부수는 衣(옷 의)의 변형이며 그 옆에 果(과실 과)가 있지요. 과일을 따 먹고 옷을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웠던 것이 아닐까요?

앞서 소개한 책은 절판되었고, 저자 C.H. 강은 세상을 떠나 공저자였던 에텔 넬슨이 개정판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를 냈는데 상형문자를 자세히 설명하느라 복잡해져 나는 첫 번 책이 더 좋습니다. ♡



『창세기의 발견』 (2017)
C.H. 강, 에텔 넬슨 지음 미션하우스 출판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회원 소식

송세실 이사 · 여성능력개발위원회 부위원장
7월 5일(일) 부친상

배은경 이사 · 소비자환경위원회 위원장
7월 13일(월) 시모상

김선희 명예이사
7월 28일(화) 부친상

윤희경 여성능력개발팀 간사
딸 염지희 씨
10월 24일(토) 오후 4시 50분
여의도 웨딩여울리에서 결혼

평생 회원



김남우
스위스 의과대학 재학중



김한민
아마존 홍보팀



오현우
에이치엠에스그룹 대표

김계옥
김민정
김영열
김자영
김혜진
박세춘
배은진
송정자
우훈희
이가연
이미재
이주용
정경열
한수빈

서울YWCA회관 대관 안내

서울Y는 강연,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주주총회,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관 시설을 운영합니다.

대강당

좌석 의자 200석, 의자 · 테이블 100석 (원형테이블은 개별 렌탈)
기자재 인터넷선, 마이크(유선 · 무선), 스크린(고정 · 이동형),
피아노, 현수막설치봉
사용료 2시간(기본) 40만원(VAT별도)부터
문의 02-3705-6093



여성의 연대로 채우고,
사회적 돌봄으로 나누다

2026 서울YWCA

생명살림 바자회

2026년 10월 29일(목) 10:00-15:00

서울YWCA회관 앞마당, 4·5층

문의 02-3705-6011





김영순

독립운동가
YWCA 활동가
1893-1986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 근우회 창립 취지서 (1927)

김영순 선생은 1893년 서울 마동(현 묘동)에서 태어났다.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군산 뽕불딘여학교(현 군산영광여중·고교) 교사를 거쳐
1917년 모교인 정신여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부임했다.

선생의 항일투쟁은 1919년 애국부인회 활동으로 본격화된다.

서기로 선임되어 비밀문서를 손수 등사하고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과 연통부 대행 임무에 본격 투신했다.

그러나 동지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출옥 후 태화여자관에서 성인교육을 담당하던 선생은

태화관을 빌려 모임을 갖던 조선YWCA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다.

1923년부터 1932년까지 Y회계와 연합위원으로 조직의 기반을 다졌다.

1927년 선생은 박원희와 함께 ‘근우회’ 창립을 이끌었다.

근우회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서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된

민족통합적 운동체로 한국근대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큰 의의를 지닌다.

해방 후에도 Y를 늘 사랑했던 선생은, 1972년 이기상 간사가 시작한

‘서울Y 할머니회’ 모임의 고문을 맡아 즐겨 참여했다.

최매지, 한신광, 신의경 등의 할머니회 회원과

어려웠던 시기 Y에서 나눈 젊음과 정열, 사랑을 회상하곤 했다고 전한다.

대한독립의 감격을 통일한국으로 이어가길 간절히 바랐던 선생은

1986년 주님 품에 안겼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숭고한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